

# 에이즈,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

홍혜걸 \*레드리본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장 \_ 중앙일보 객원 의학전문기자



수년 전 인국동의 한 카페에서 에이즈 감염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. 감염인의 고통과 현실을 지면에 생생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였다. 그런데 인터뷰를 시작한지 10분도 못돼 옆자

리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다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. 마치 못 볼 것을 보았다는 그들의 불편한 표정이 지금도 역력하다. 대화와 목욕, 식사 등 감염인과의 일상적 접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편견을 실감할 수 있었다.

에이즈 감염여성이 지방에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식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. 신문사로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. 천편일률적으로 보건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였다. 왜 정부가 감염자를 제대로 통계 내지는 감시하지 않아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느냐는 항의였다. 심지어 감염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수용소에 죄다 감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친 주장도 있었다. 다른 불쌍한 환자들도 많은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변태 성욕자들인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.

에이즈는 현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. 암이나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질환보다 에이즈에 걸리는 것을 꺼려한다. 에이즈에 걸리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는 의견도 있다. 이울배반적인 것은 이토록 두려워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여론은 가혹하리만큼 동정적이

지 않다는 사실이다. 이유는 80년대 초 에이즈가 처음 나타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뿌리 깊은 편견 탓이다. 그리고 이러한 편견의 형성엔 언론의 책임이 다분히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. 연일 TV 화면과 신문 지면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.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도 에이즈에 관한한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 행태는 여전하다.

돌이켜보니 필자 역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. 수년전 필자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에이즈전문가인 모 의대 교수가 출연했다. 필자는 에이즈 감염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래서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강조하려고 애썼다. 다소 과장을 하더라도 실제 감염자의 비참한 사례를 들려달라고 주문했다. 그러나 이 교수는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.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노교사였는데 정년퇴임 기념으로 태국에 갔다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한다.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그를 비난하고 배척하기보다 이해와 애정으로 배려한다는 것이다. 외래에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나는데 그 표정이 평화롭기 그지없다는 것이었다. 에이즈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며 걸린다고 해서 파멸로 치닫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.

‘그들도 우리처럼’

‘움지에서 양지로’

에이즈 관련 보도는 좀 더 따뜻하고 차분해져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.